

## 함께 푸는 미스터리<11> 해답

최윤교수는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을 괴롭힌 것은 각기 다른 시간에 노완수씨집에서 나오는 총성을 들었고 보고한 두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사장이 일찍 살해되었다면 배장섭씨가 무슨 이유로 오후 3시에 노사장집에서 뛰어나

### 살인누명을 벗긴다

다. 저는 노사장님보고 제발 저를 놓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는 저의 호소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사장님은 제가 떠날 때까지 살

고 백씨가 그를 살해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그 뒤 백장미씨는 집에서 이 총을 발견하자 이번에는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판장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호출자의 기록을 분석하면 김수달씨의 음성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달씨는 배장섭씨가 노사장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배씨를 체포할 수 있게 꾸민 것입니다.”

백장미씨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진짜 살인자의 죄를 뒤집어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수달씨는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시인했으나 노사장을 쏜 사람은 김수정씨라고 그는 털어놓았다.

김수정씨는 백장미씨와의 애정관계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는 것이다. 그 뒤 조사결과 김수달씨가 회사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났다.

김수정씨와 김수달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백장미씨는 위증죄로 선고 유예를 받았다. **57**

## 백장미 둘러싼 애정관계 殺人劇 구속됐던 남편은 무죄로 풀려나

왔겠습니까? 또 배씨는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총을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였겠습니까? 배씨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인 자기의 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교수는 이때 백장미씨에게 물었다.

“살인사건 당일 노완수씨를 보았던가요?”

“네, 남편이 만나기 전이었습니

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백장미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리고 백씨의 남편이 범죄현장에 도착하기전에 살해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백장미씨의 남편은 백씨가 노완수씨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백장미씨의 남편이 도착하고 노완수씨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